

“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산 사람 ”

■ 이종윤 원로목사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할 만한 다양한 재능은 없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쏟아 행한 사도 바울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 하기로 그의 행동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다. 사도는 이 한가지만을 행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그의 영혼의 일관성과 강력한 단호함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이다.

바울처럼 전심을 다하고 사도로서 온 힘을 철저히 집중시킬 수 있고, 강력한 심령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기울여 자신의 목적에 몰입하는 이며, 오로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 사상에 쉽게 빨려 들어간 생각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냉철하고 현명하며 공정하고 깊이 있는 신중한 학자였다. 사물을 볼 때 의미와 연관시켜 보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는 어떠한 작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행하였고,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돌진만 하는 황소 같은 사람도 아니었다.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똑바로 밀고 나갈 때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진하고 원한 일이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는 복음의 핵심을 짚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고린도교회 내부의 어떠한 문제보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전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가르치심과 사역들 뿐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숨을 바쳐 증거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주저함 없이 증거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으로 증거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었으며 그를 하나님의 본체로 믿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바울에겐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all in all) 이셨다. 사도는 예수님의 구속주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죽으시고 매장되시어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유일한 주제였고, 그는 그 주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의 설교는 이 주제에 집중되었고, 어떤 다른 주제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오늘 우리의 강단이 이와 같은 주제로만 채워진다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 다른 주제를 가미하여 미봉책을 쓴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그의 부활을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소감이 된다 해도 사도는 굴하지 않고 자기 안전과 인기를 위해 탁월한 말솜씨나 자기 체험이나 지혜로 장식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아무리 자랑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꼭 빼앗으려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의 원수들은 십자가를 대적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을 것이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성도는 살고 죽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24호] 2012년 6월 1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0:23-2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Freedom of Believers"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해정, 양재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하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리),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일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록, 수문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일(말리우), 이재물(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가(스카리)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

■ 마 5:13-16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주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요, 우주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땅의 소금이요 우주의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직설적인 서술법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적용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들을 믿으면 회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경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7)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영적인 눈으로 이 같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열심인 교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또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교회는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교회적 어려움과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함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함,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구함, 그리고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의 신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소금의 짠맛은 더 할 것입니다.

2. 세상의 빛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직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야만 등불이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6).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기준이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는 매일 주님께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기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여지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감동함으로 느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이 더 이상 상투적인 말이 아닌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승구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5:11 인 도 자

찬 송 315(512) 다 함 께

기 도 김은석 집사

성 경 막 6:30-4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 설 교 자

* 찬 송 279(33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김은희⁹ 권사

성 경 삼하 5:13-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바알브라심”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²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김양언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살롬 권사회 월례회 / 15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minster홀)
2. 에스더전도회 9월 월례회 / 15일(주) 3부 예배 후 후문 입구(한티공원 쪽)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4.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성봉 목사(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신반포중앙교회 은퇴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 장례</p> <p>1.故 장문환 남(16교구 장호현 집사의 부친, 정연실 성도의 시부) / 10일(화) 별세, 12일(목) 발인</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52명	219명	205명	1,276명	11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8일	헌 금	32,995,000	
	특별예배비		1,178,000
	교회학교운영비		29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54,260
	통 신 비		315,390
	차량유지비		574,240
	소모품비		262,93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1,086,070
	잡 비		5,500,000
	합 계	32,995,000	9,907,890